

Style 1 조선일보

AUGUST 2019
vol.192

Tiffany.kr | ©T&CO. 2019

THE DIAMONDS OF TIFFANY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장인정신을 향한 위대한 여정

2019년 8월 10일-8월 25일
DDP 서울



TIFFANY & Co.

ENGINEERED FOR MEN
WHO CONQUER THE ELEMENTS.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Ref.5033:

그 어떤 형태의 스포츠도 항해만큼 자연과 기술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트에서 파도를 타며, 당신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바람을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바스코 다 가마와 같은 포르투갈의 선원들에게 항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항로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열쇠였습니다.

현대의 탐험가들과 모험가들에게 항해는 물 위를 여행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이들은 손목시계를 고를 때도 이와 같이 단호한 선택을 합니다. 18캐럿 레드 골드로 제작된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는 우아함과 높은 수준의 기능성이 결합된 근사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포르투갈 선원들의 정신을 담고 있기에, 오늘날의 탐험가들과 과거 시대의 모험가적인 정신을 완벽하게 연결시켜줍니다.

IWC. ENGINEERED FOR MEN.



12



Tiffany & Co.

티파니의 장인 정신과 에이징 오브 다이아몬드
의 여정을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 (티파니 다이아
몬드(The Diamonds of Tiffany): 방문할 수 없
는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을 향한 위대한 여정)
이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 1관 2관에서 개최된다. www.
thediasonline.tiffanyevent.kr에서 온라인 사
전 예약을 통해 무료입장 가능하며, 도슨트 투어
는 평일에만 1시간 단위로 운영되고, 현장 신청 가
능하다. 문의 02-547-9488

20



08

12 **파리의 호텔 풍경, 새로워진 '여행의 공간'** 21세기 디지털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여행하는, 낯선 곳에서 체류하는 이동과 이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방인의 피로와 긴장을 최대한 덜어주는 인목한 감성은 여전히 호텔의 필수 덕목이자 차별화의 비로미터일 것이다. 아무리 호텔의 개성이 다채롭기 그지없고 사람들의 취향 역시 제각각이지만, '본질'이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럭셔리 호텔 문화의 토대를 처음 마련했으나, 세월이 흘러 현대 젊은 감성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던 파리의 변화가 느껴지는 '여행의 공간'을 돌아다본다.

14 **MY ONLY LOVE**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어줄 워킹 주얼리 & 워치 컬렉션.

20 **LA DOLCE VITA**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가을 신부의 달콤한 준비 시간.

28 **UNIQUELY VIENNESE** 찬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펼쳐진 비엔나는 일단 '고전음악'과 때려야 뗄 수 없다. 그래서 클래식 애호가들은 베토벤과 슈베르트, 브람스의 모, 모차르트 기념비 등이 있는 공원 같은 빈 중앙 묘지를 찾아 음악 성인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클래식트의 전채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엔나는 그저 고풍스러운 과거의 도시가 아니다.

30 **IN HARMONY WITH NATURE** 굳이 심폐인 애호가가가 아니더라도 절로 사람에게 빠질 만한 미지의 향연이 지난 7월 초, 우리의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에서 펼쳐졌다. 미술관 스타 셰프 한정식과 손잡고 진행한 '동해농부부터 2002 - 플래니튜드 2' 행사 현장을 소개한다.

31 **THE LEGEND OF DIAMONDS** 1837년 창립된 이래 독보적인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찾아 연마하고 세공하는 일에 헌신해온 티파니. 이들의 특별한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윤리적인 채굴에서 시작해 장인의 손길로 마무리하기까지, 위대한 여정을 거쳐 탄생한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2019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다.

32 **DEDICATED TO WOMEN** 우아한 아름다움에 혁신적 기술력까지 겸비했다. 오직 여성을 위해 탄생한 컴플리케이션 워치.

33 **A MIRACLE DIAMOND** 최상의 원석, 최고의 감별 능력과 연마 기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지닌 기업만이 얻을 수 있는 자격, 사이트 홀더. 타사에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으로, 최상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다루며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34 **PRECIOUS TIME** 착용할 때마다 소중한 순간을 추억하게 하는 마법 같은 예쁜, 시계. 가장 행복한 시기에 젊은 감성으로 선택하는 아이템 인 만큼 오래 착용해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을 권한다.

36 **OPTIMIST RHYTHM**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의 한 부둣가에 거대한 빛의 공간이 열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프라다의 2020 S/S 남성복 패션쇼가 시작됐다. 모든 공간을 지배한 빛의 플레이는 환상적이었다. 그 빛을 관통하는 프라다의 리웨이는 다없이 강렬했다.

37 **FOR MY DEAREST** 다양한 취향을 지닌 예비부부, 커플에게 제안하는 룰진의 베스트 페어 워치 셀렉션.

38 **EDITOR'S PICK** 뜨거운 태양에 지친 피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큐)가 추천하는 8월의 뷰티 신제품.

RICHARD MILLE



CALIBER RM 37-01

Style 조선일보

Issue.192 August 2019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는 동성인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큐)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큐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Jewel WHITE DAY

쿨한 매력의 화이트 골드 주얼리들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총 1백8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립 드 링 **클림** 이어링 2천만원대 **부채문**, 반지 **지열** 모티브 티파니 빅토리 키 펜던트 1천9백60만원(세진 별도) **타파니**, 비제르원 탄생 20주년을 맞아 5밴드 오라지블 링 인공에 XX Anniversary를 새겼다. 2백만원대 **불가미**, 다이아몬드로 인제적인 꽃잎과 꽃술을 표현한 프리블 네크리스 7천9백만원 **반달리드 아젤**, 소용돌이 모양의 나선형과 서로 교차하는 각 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같이 날뜰 구 매달라 드 까르띠에 링 2천4백만원대 **까르띠에**, 감자에 착용하는 포인트 링으로 좋은 포제션 오픈 링 5백40만원 **파이제**, 반짝이는 최상급 이모아 진주를 세팅한 핸드 펜던트 네크리스 4백77만원대 **타사키**,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오픈 브라이덜릿 6백93만원대 **사셀 화이트 주얼리**, 에디터 장민은



Fashion NEW WAY OF SEEING

한껏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줄 패션 하우스의 2019 선글라스.

(위부터) 여행용 트렁크에서 영감을 얻어 측면에 메탈 스트랩 디테일을 더한 투웨이 아세이트 소재 치오 평평 선글라스 84만원 **루이 비통**, 템플에 오렌지 컬러 라터 브레이크 디테일을 더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45만원 **토즈**, 작은 스타드로 장식한 얇은 메탈 프레임과 그라데이션 컬러 렌즈가 멋스럽게 어우러지는 리터럴 선글라스 84만원 **루이 비통**, 아세이트 소재에 고유의 텍스처를 지닌 카봉 소재를 덧박은 캐츠 아이 프레임 선글라스 1백40만원 **살바토레 파라코**, 금색한 직사각형 리트 핑크 컬러 렌즈가 감각적인 메탈 프레임 선글라스 51만원 **구찌**, 유크영의 레트로풍 오버사이즈 프레임이 돋보이는 세미온 선글라스 4만원 **탈렌토는 가리버니**, 에디터 **이혜미**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Hot Place
참산한 감성의 럭셔리 호텔 브랜드 안다즈(Andaz), 서울에 입성하다

럭셔리 부티크 감성을 품은 하얏트 계열의 호텔 브랜드 안다즈(Andaz)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오는 9월 6일 서울 입구정동에 문을 여는 안다즈 서울 강남(Andaz Seoul Gangnam). 해당 지역의 문화 감성을 차원 높은 개성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적 역량으로 인정받아온 안다즈는 틀에 박히지 않되 품격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을 표방한다. 지하철 3호선 입구정역 과도 바로 통하는 곳에 자리한 안다즈 서울 강남은 깔끔한 세련된가 넘치는 외관부터 사선을 사로잡는다. 결코 과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도시 풍경을 환하고 운치 있게 물들이는 듯한 랜드마크의 존재감을 일찌감치 뽐내다. 인터리어를 맡은 팀은 네덜란드의 피트 붐(Piet Boon) 스튜디오. 한국의 조경사와 보자기 등에서 받은 영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2백41개의 객실은 사선 벽면 설계를 적용해 공간감을 키워냈다. 또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아인 테라스와 정원을 갖춘 27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해 25개 스위트룸이 마련돼 있다. 꼭대기 층에는 163㎡ 규모의 럭셔리 펜트하우스도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상큼하지만, 2층에 자리 잡은 다이닝도 주목된다. 강남 곳곳에 위치한 많은 맛집을 모티브로 삼아 고급스러운 미식 골목(alley)을 콘셉트로 삼았다고. '오븐', '그릴', '타파스 하우스', '카테일 바', 그리고 '살페민 바 & 쇼콜라티에' 등 다섯 종류의 키친을 통해 한식, 일식, 태국 등 동양식 요리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 서양식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안다즈의 한국 입성은 전 세계적으로는 21번째, 아시아로 좁히면 4번째에 해당된다. www.andazseoulgangnam.com 에디터 **고성연**



Beauty FEEL FRESH

바다 내음과 나무 그늘 아래 풍기는 바람 냄새, 과즙을 한껏 머금은 과일 향을 담은 향수는 기분까지 상큼하게 해준다.

(왼쪽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 베르가모트, 핑크 페퍼, 앰버우드, 머스크 향을 조합한 우디 프레스시 계열의 남성 향수(50ml 6만9천원). **사셀 레 엑스클루시브 드 사셀 컬렉션 오 드 파르페 1957** 진한 화이트 마스크와 플로럴 우디 노트가 어우러진 사셀의 시그니처 향을 담은 여성 향수(75ml 28만원). **겐조 플라워바이엔조 오 드 비 생동감** 넘치는 진저 제스트 향에 오렌지 블로섬, 불가리안 로즈, 통카 빈을 더해 더욱 깊이 있는 향을 전하는 플로럴 향수(50ml 10만2천원). **구찌 플로라 고자스 기드나리아 오 드 뒤왈렛** 깊고 풍부한 가드니아꽃 향에 파츨리와 블랙 슈거, 레드 베리 향을 더한 플로럴 계열의 여성 향수(100ml 16만1천원). **조 말론 런던 오렌지 블로섬** 흰 꽃향과 빌사리 베타베르의 농밀한 향에 오렌지꽃과 꿀꽃의 상큼함을 더한 플로럴 프루티 코롱(100ml 19만2천원). **에어린 에게 블라썸** 민트, 바베나, 자스민, 오렌지꽃, 베타베르 향을 조합해 그리스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을 표현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50ml 15만원). **틀레엔가거나 더 온리 원 2** 감각적인 커피 향과 바이올렛 향에 피우다리 레드 로즈와 풍부한 과즙을 머금은 레드 베리 향을 더한 플로럴 계열의 여성 향수(100ml 16만8천원). **객원 에디터 박강실**

Exhibition PRO/RARA ART+Cociety, 틀을 깨는 유연한 사고를 지향하는 창조적 플랫폼

동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경계를 뛰어넘는 문화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고가의 작품이라도 여러 명이 분할 소유권 형태로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라타 아트(PRO/RARA ART), 미술품의 가치를 넘어 원하는 만큼 소유권을 사들이고, 변동된 가격에 자유롭게 소유권을 거래할 수도 있는 미술품 거래 플랫폼이다(누구나 접할 수 있는 프리 세일 기간을 가진 뒤 소유권자와 그 동반자인 뷰잉 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올 초 미국 아티스트 조지 콘도의 작품으로 영감을 캐서, 최근에는 영국 작가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을 내세우면서 중강한실(AR)을 활용한 연계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장은 서울 호림아트센터 M층(www.prorataart.com), 성수동 서울숲역 근처에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기획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 커뮤니티 코사이어티(cociety.co.kr)가 생겼는데,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컬처 프로젝트' 흥미로운 콘셉트의 전시를 열 예정이다. 참여 작가는 각각 건축, 인터리어 디자인,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3명의 크리에이터가 일하는 스튜디오 텍스처 온 텍스처, 주로 고가의 이목을 받아 작업하는 이들은 (변화 구성(Varying Texture))이라는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에서 텍스처 숨이라는 상점을 운영한다. 10점의 산별된 정물을 선보이는데, 크기가 전복되고 형태가 변형된 오브제들과 대조되거나 조화를 이룬다. 작가들이 해온 여러 작업과 활동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화 구성되는 것. 이 정물들은 사진의 주요 피사체이자 전시를 위한 오브제, 동시에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되는 셈이다. **에디터 고성연**



www.tasaki.co.kr

TASAKI
BRIDAL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BRIDAL



GALLERIA EAST • LOTTE WORLD • SHINSEGAE MAIN • SHINSEGAE GANGNAM • HYUNDAI PANGYO • SHINSEGAE DAEGU

MILAN • PARIS • LONDON • TOKYO

ALMATY • ASTANA • BEIJING • DUBAI • FLORENCE • HONG KONG • HONOLULU • KIEV • KUALA LUMPUR • KYOTO • MACAU • MANILA • MEXICO CITY • MOSCOW • NAPLES • ODESSA • OSAKA • PORTO CERVO • ROME • SEOUL • SHANGHAI • SINGAPORE • TAIPEI • ULAANBAATAR • VENICE • YOKOHAMA • IN ALL ROCCA 1794 BOUTIQUES AND IN SELECTED PRESTIGIOUS JEWELERS

DAMIANI.COM

1 플라워 임브로이더리가 눈에 띄는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 1천5백만원대 **적 포츠 by 아틀리에 쿠**. 2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트 펜던트 핑크 골드 네 크로스 3백79만원 **다이아니**. 3 펠라 크리스탈을 다한 체인 스트랩이 화려한 심비 마테리얼 가죽 미니 백 1백29만원 **미우미우**. 4 화관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플라워 타이러 1백20만원 **파리스 by 아틀리에 쿠**. 5 자연의 생동감 넘치는 이빨다움을 담은 레 제스피에글로리 드 쇼메 컬렉션 로즈 골드 브로치 가격 미정 **쇼메**. 6 볼드한 크리스탈 장식에 눈길을 끄는 포인티드 토 핑크 크리스탈 펌프스 가격 미정 **자미 후**. 7 핑 뉴이 플루타이도 퍼플 컬러 샴페인 글라스 2개 세트 97만원 **바카라**. 8 아보아 진주와 함께 투명 한 뉴온렛의 가치를 세팅한 리파이드 리벨리온 링, 아아원 모두 가격 미정 **타사키**. 9 상쾌한 레몬 플라워 향으로 시작해 우아한 재스민 향으로 마무리되는 플로르 드 시트로네, 100ml, 19인3천원 **세로주 루텐**. 10 핑크 스웨이드 이브닝 클러치 2백만원대 **자미 후**. 11 크리스탈로 장식한 메탈릭 스웨이드의 투명 PVC 소재 슬링 백 신들 1백2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12 잎사귀 모양의 오픈워크 크리스탈 벨을 32만원 **아틀리에 스오로브스키**. 13 활짝 핀 꽃송이 모티브가 아름다운 주얼리 보관함 452만원 **제이스트루워터 by 갤러리아 기프트샵**. 14 21x25mm 크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맨더드 캐르페에 미니 워치 가격 미정 **까르페에**. 15 버블 모티브를 화려한 크리스탈로 장식한 레드 브레이슬릿 62만원 **로저 비비에**.

갤러리아 기프트샵 02-6905-4199 **까르페에** 1566-7277 **다이아니** 02-515-192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미우미우** 02-3218-5331 **바카라** 02-310-9306 **세로주 루텐** 02-6905-3769 **쇼메** 02-3479-1597 **아틀리에 스오로브스키** 02-6930-9984 **아틀리에 쿠** 02-517-3889 **자미 후** 02-3443-9469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타사키** 02-3461-5558



for her Selection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예비 신부를 위해 준비한, 장식적 디테일이 돋보이는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스타일리스트 유정원 & 이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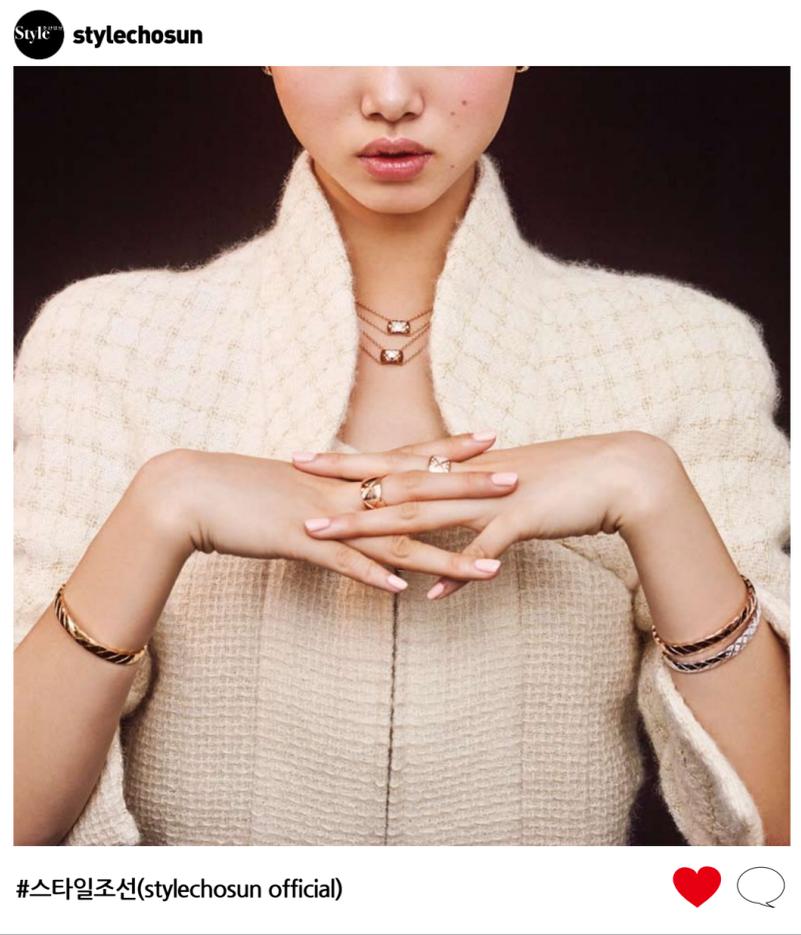


1 매트한 블랙 로고 디테일의 투톤 카드 지갑 30만원 **프라다**, 2 잔잔한 모노그램 패턴 보타이 21만5천원 **루이 비통**, 3 은은한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이 감각적인 파크트 리펠 텍사도 1천3백90만원, 화이트 셔츠 88만원, 포켓 스캐어 15만원, 보타이 34만원 모두 **브리오니**, 4 용도에 따른 별도의 수납공간을 갖춘 여행용 클러치 29만5천원 **피에라노 by 갈라리아 기프트샵**, 5 심플한 메탈 버클 레더 벨트 19만5천원 **알토 by 유니테어**, 6 블루 스파셜을 위한 스텔링 실버 신토스드 카르페 카브스 링크 79만원대 **카르페에**, 7 마그네틱을 상징하는 중산 모자 모티브가 귀여운 딥 블루 타이 가격 미정 **델보**, 8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 아이코닉한 듀코드 스트라이프를 다한 듀코드 시티 HS 컬렉션의 7내용 캐리어, 38x54cm, 79만원 **하트만**, 9 인하우스 울트라 신 쿠브먼트 430P로 구동하는 알티플라노 화이트 골드 워치 2천1백20만원 **피아제**, 10 간결한 나무 인사귀 모티브의 부토니에 92만원 **브리오니**, 11 갑옷의 투명한 블루 톤과 몽블랑 스타 엔블람이 아름다운 스타워커 컬렉션 블랙 레진 만년필 60만원대 **몽블랑**, 12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자연스러운 칼라의 가죽과 견고한 실루엣이 아름다운 레이스원 슈즈 2백60만원 **벨루티**, 13 모엣 임페리얼의 출시 1백50주년을 기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보틀 8만원대 **모엣 & 샹동**, 14 양면을 각기 다른 프린트로 연출한 블랙 행커킵 18만5천원 **루이 비통**, 15 면도기, 브러시, 스텐드로 구성된 클래식 세이빙 세트 69만9천원 **에드워드만 by 트루젯엔젤**.

갈라리아 기프트샵 02-6905-4199 **카르페에** 1566-7277 **델보** 02-6905-3709 **루이 비통** 02-3432-1854 **모엣 & 샹동** 02-2188-5100 **몽블랑** 1670-4810 **벨루티** 02-547-1885 **브리오니** 02-3274-6483 **유니테어** 02-542-0370 **트루젯엔젤** 02-511-1805 **프라다** 02-3218-5331 **피아제** 02-540-2297 **하트만** 02-2007-2943

for him
Selection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한 취향의 예비 신랑에게 어울리는 다채로운 웨딩 아이템 제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스타일조선(stylechosun official)

instagram.com/
stylechosun

평범한 일상 속, 보다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꾼다면 품격 있고 감각적인 매거진 <스타일 조선일보>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소통하세요. <스타일 조선일보>는 단순히 럭셔리한 스타일과 정보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품격과 지식, 럭셔리, 그 이상의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까지 함께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바로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파리의 호텔 풍경, 새로워진 '여행의 공간'

아름답고 매력적인 호텔을 몹시 사랑해 세계 곳곳을 돌면서 그 경험을 스케치로 남겨온 한 건축가는 "객실은 인간이라는 자연을 감싸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21세기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여행하는, 낯선 곳에서 체류하는 이동과 이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방인의 피로와 긴장을 최대한 달래주는 안락한 감성은 여전히 호텔의 필수 덕목이자 차별화의 바로미터일 것이다. 아무리 호텔의 개성이 다채롭기 그지없고 사람들의 취향 역시 제각각이지만, '본질'이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럭셔리 호텔 문화의 토대를 처음 마련했으나, 세월이 흘러 한때 '낡은 감성'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던 파리의 변화가 느껴지는 '여행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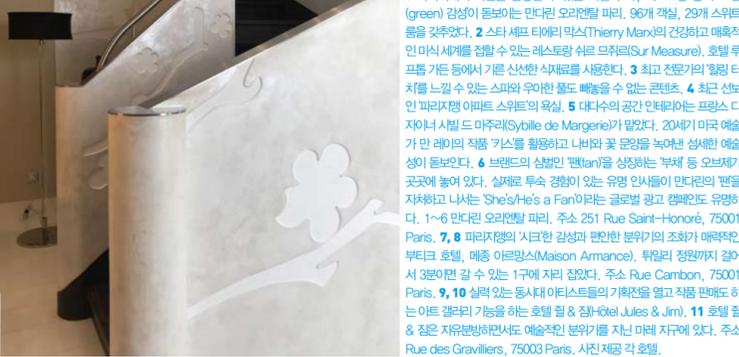
단 하루밤이라도 일상에 벗어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되 비록 처음 접하는 낯선 공간이지만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분위기와 서비스. 낭만을 꿈꾸는 신혼여행이든 바쁜 일정 중 스쳐 지나가는 출장 여행자인 점ToPoint을 피해 편안한 환경에서 쇼핑이나 문화 활동을 누리는 '호캉스족'이든 호텔에 대한 기대치에는 낯선 곳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락함'의 지분이 높게 마련이다. 호텔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봐도 그 같은 본질을 알 수 있다. 호텔은 라틴어로 '대접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닌 호스페스(hospes), '심신의 회복을 의미하는 호스피탈레(hospitale) 등에서 비롯됐다. 호텔이라는 명사를 처음 사용한 곳은 1760년대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제, 종교, 군사 등 특정 목적을 지닌 여행객이 머무는, 기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럭셔리 호텔의 개념은 19세기 들어 파리에서 자리 잡았다. 이 배경에는 나폴레옹 3세 집권 시기(1848~1870)와 발맞춰 19세기 중반부터 펼쳐진 파리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있다. '산업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나폴레옹 3세는 조르주외젠 오스만 남작을 내세워 파리를 세계에서 가장 근대적인 도시로 개조하겠다는 야심 아래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 덕분에 파리는 방사형 도로망과 쪽쪽 뻗은 대로, 높이, 색채, 형태 면에서 조화미를 갖춘 건물들, 녹지 등 '모던 파리의 근간'을 갖추었다. 호화로운 상업 시설도 붓물처럼 쏟아졌다. 1850년 르 그랑 호텔(Le Grand Hôtel)이 생겨났고, 1852년 세계 최초의 백화점으로 꼽히는 봉 마르세(Bon Marché), 1865년 프랭탕(Printemps) 백화점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1889년에는 프랑스혁명 발발 1백 주년을 기념해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면서 에펠탑이 생강 왼쪽에 모습을 드러냈다. 1899년에는 '호텔리어들의 왕'으로 꼽히는 스위스 사업가 세자르 리츠의 작품인 리츠 호텔(Ritz Paris)이 1구에 그 화려한 자태를 선보였다. 1900년에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지하철도 개통했다. 또 다섯 번째 만국박람회를 치르기 위해 외관이 수려한 기차역 오르세(Orsay) 역도 세웠다. 최초의 대형 호텔 르 무리세(Le Meurice)는 1907년 등장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여행지이지만, 이즈음 파리는 전 세계 문화 예술인의 '로망'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기 전까지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파리의 황금기를 가리켜 '벨 에포크' 시대라 칭하는 이유다.

도시 풍경에 경쾌함과 활기를 더해주는 호텔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휩쓸고 지나간 뒤 미국이 슈퍼 파워를 지닌 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새롭게 문화·경제적 패권을 쥐었지만, 그래도 파리는 '예술의 수도'라는 이름값을 유지했다. 미식·미술·패션의 도시라는 여러 수식어와 함께. 그러나 노쇠한 도시 이미지가 공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도시 재생에 박차를 가했다.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바꾸고(오르세 역이 1986년 오르세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루브르 박물관을 개조해 그 유명한 유리 피라미드 출입구를 탄생시켰으며, 라테팡스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그 배경에는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ts)' 도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미테랑 대통령의 큰 그림도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또 달라졌다. '소프트 파워가 무엇보다 중시된다는 새로운 세기를 둘러싼 도시 경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일까? 언젠가부터 파리는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 브랜딩에 성공한 런던에 비하면 창조적 활기에서 뒤처졌다. 또 어느샌가 도시 재생의 호명한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는 '젊고 힙한' 이미지의 베를린도 해성처럼 떠올랐다. '빛의 도시(City of Lights)'라는 파리의 애칭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콘텐츠의 원천 경쟁력이 워낙 빼어나 관광객은 여전히 많기는 해도, 도시 곳곳의 인프라, 예컨대 직척하다는 땅이 지배적인 지하철역, 지저분한 거리나 광장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가 자주 들렸고, 현대적인 건축물의 상징이던 조르주 폼피두 센터마저 수십 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오래된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시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호텔도 마찬가지.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호텔이 많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강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팔색조처럼 진화하는 호텔 산업의 현주소를 볼 때 파리의 경쟁력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그런데 현재의 온도는 또 다르다. 그동안 파리에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취향과 시대의 변화, 저마다 다른 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다채로운 호텔이 속속 등장해 도시에 경쾌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걸출한 해외 건축가들이 지은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데다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파리를 21세기형 친환경 광역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9년 발표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효과인지, 전체적으로 투자의 활기도 느껴진다. 더구나 파리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1 가까이에서 지면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과 바, 레스토랑 등의 '그린(green)' 감성이 돋보이는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 96개 객실, 29개 스위트 룸을 갖추었다. 2 스타 셰프 티에리 막스(Thierry Marx)의 건강하고 매혹적인 미식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레스토랑 슈르 메주르(Sur Mesure). 호텔 루프를 기점으로 본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3 최고 건축가의 '힐링'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스파와 우아한 실내 정원도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4 최근 선보인 파리자택 아파트 스위트의 욕실. 5 대다수의 공간 인테리어는 프랑스 디자이너 사빌 드 마주르(Sybil de Margerie)가 맡았다. 20세기 미국 예술가 만 레이의 작품 '기스를 활용하고 나무와 꽃 모양을 녹여낸 생생한 예술성이 돋보인다. 6 브랜드의 상징인 팬(fan)을 상징하는 부채 등 오브제가 곳곳에 놓여 있다. 실제로 투숙 경험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만다린의 팬을 자랑하고 나서는 'She's/He's a Fan'이라는 글로벌 광고 캠페인도 유명하다. 1~6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 주소 251 Rue Saint-Honoré, 75001 Paris. 7, 8 파리자택의 '시크한 감성과 편안한 분위기'의 조화가 매력적인 부티크 호텔, 매종 아르망스(Maison Armanca). 튀일리 정원까지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1구에 자리 잡았다. 주소 Rue Cambon, 75001 Paris. 9, 10 실력 있는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개성있는 열고 작품 만해도 하는 아트 갤러리 기능을 하는 호텔 쥘 & 짐(Hôtel Jules & Jim). 11 호텔 쥘 & 짐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지닌 마네 자리에 있다. 주소 Rue des Gravilliers, 75003 Paris. 사진 제공 각 호텔.



로 선정됐다. 건축과 예술, 미식, 쇼핑 등 갖가지 콘텐츠가 결합된 유기체로 진화하고 있는 호텔은 당연히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 속 녹음 짙은 정원의 매력,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

'그린(green)'은 비단 그랑 파리의 코드만이 아니라 글로벌 키워드다. 친환경 요소와 현대미를 동시에 품은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Mandarin Oriental Paris)는 1구에서도 요지인 생토노레에 자리 잡았는데, 파리의 호텔 신(scene)에 찬성할 감흥을 선사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라미 말렉을 비롯해 상당수 유명 인사들이 팬(fan)을 자처하며 나서는 광고 캠페인으로도 잘 알려진 호텔 브랜드 만다린 오리엔탈(브랜드의 심벌인 부채를 모티브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그룹의 첫 프랑스 진출작인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는 이 도시에서 열 곳 남짓한 '팰리스(palace)'급으로 분류되는 슈퍼 럭셔리 호텔 이면서도 고색창연한 특급 호텔과 달리 세련된 디자인의 부티크 감성을 품고 있다. 팰리스는 5성급 호텔 중에서도 남다른 개성과 빼어난 서비스, 프랑스 문화를 반영하는 '살의 예술' 미학을 갖춘 특별한 호텔에 주어지는 최고 등급. 앞서 운을 댔듯 '그린' 감성은 웬만한 명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심에서도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이 호텔의 장점이다. 뒤일리 정원을 지척에 두고 있지만, 호텔 내에도 소담스러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바와 레스토랑, 녹음이 느껴지는 테라스를 둔 일부 객실, 루프탑 가든에서 공수하는 신선한 채소를 재료로 삼은 스타 셰프 티에리 막스(Thierry Marx)의 건강한 미식 세계 등 곳곳에서 '에코 프렌들리' 감성이 묻어난다. 실제로 프랑스 최초로 최고 친환경 등급인 HQE를 획득한 호텔이기도 하다. 그랑 팔레나 에펠 타워 등의 랜드마크가 사이에 들어오는 테라스를 거느린 럭셔리 스위트로도 명성 높은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는 최근 아주 특별한 한 새 공간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파리에 위치한 어느 객실보다 넓은 약 429㎡(1백30여 평) 규모를 뽐내는 파리자택 아파트 스위트가 그 주인공이다. 세계적인 스타 듀오로 각광받는 기 & 부아지에(Gilles & Boissier)가 디자인을 맡았는데, 호텔 6층 공간에 4개의 침실과 욕실, 리셉션, 다이닝 룸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약 231㎡(70여 평)의 눈부신 테라스가 백미다.

파리여행의 멋을 간직한 '매종 아르망스와 아트 갤러리'를 품은 '호텔 쥘 & 짐'

모든 이가 럭셔리급 호텔에 머물 수는 없다. 또 그럴 역량이 된다 하더라도 기호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다행히 세상은 넓고, 호텔의 선택 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파리에서도 어느 도시처럼 간단한 주거 시설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 호텔, 부대시설은 풍부하지 않지만 독특한 디자인이나 서비스 등 몇 가지 요소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티크 호텔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부티크 호텔은 거의 갤러리 수준으로 '아트'를 콘셉트로 부각하기도 하고, 지역색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인테리어를 선사하기도, 또는 하이테크 기기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 호텔과 레지던스형 공간, 고성 호텔 등을 꾸리고 있는 '에스프리 드 프랑스(Esprit de France)'는 단어 그대로 '프랑스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호텔 브랜드다. 최근 파리에서도 이 브랜드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은데, 포송 호텔(Fauchon Hôtel) 등 지난해 8구 샹젤리제 근처에 개장한 호텔들도 있고, 올 초 1구에 들어선 매종 아르망스(Maison Armanca)도 있다(만다린 오리엔탈과 지척이다). 19세기 프랑스 문화 스타일의 장광조실(아르망스(Armance))에서 따온 이름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오브제에 힘입어 도회적인 감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매종'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내 집' 같은 분위기가 묻어난다(실제로 작은 안뜰이 있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건물 안에 있다). 사전 예약하면 20유로대에 이용 가능한 공항 픽업, 체류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제공 등 알짜 서비스를 주목할 만하다. 20개의 객실은 대부분 크지 않지만, 영리하게 공간을 살린 인테리어와 객실 슬리퍼를 담아놓은 주머니에도 '남녀용에 따라' 각기 다른 캐릭터를 새겨놓는 등의 이가지기함이 사랑스럽다.

개방적인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마네 지구에는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영화 제목과 이름이 같은 부티크 호텔이 있다. 누벨라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처럼 흔치 않은 매력을 품고 있는 호텔 쥘 & 짐(Hôtel Jules & Jim)이다. 미술 작품을 걸어놓는 호텔이 요즘 꽤 눈에 띄는데, 쥘 & 짐은 복도, 레스토랑 같은 호텔 내 여러 공간을 활용해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아예 작은 갤러리 역할을 한다. 경쟁력 있는 갤러리와 손잡고 코트니 로이(Kourtney Roy), 레인 파라디(Reine Paradis) 등 주로 사진전을 연다. 입구에서 회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품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복도와 아담한 리셉션 공간을 지나 안뜰로 이어진다. 한 면을 가득 차지한 녹음을 배경으로 백안로와 의자, 영화 속 한 장면을 담은 사진 프린트를 비롯한 여러 소품과 '아트'로 근사하게 펼쳐진 정원이 인상적이다. 그 옆에는 조식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바(bar)로 활용되는 F & B 공간이 있는데, 브런치 수준으로 정오까지 식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후 1시에 체크아웃을 해도 되는 '닉넬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반갑게 다가올 듯하다. 방은 스위트룸 빼고는 작은 편(12~17㎡)이지만 조명, 샤워기, TV 등 '스마트' 환경이 잘 구비돼 있는 데다 분위기가 편안하다. **고 & 성원**



my only Love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서약의
징표가 되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ouple Watches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46.5x27.5mm 크기의 직사각형 스틸 케이스에 모던한 블루 기요세 다이얼을 더한 티파니 아스트 웨스트 오토매틱 6백30만 원대, 호환 가능한 더블 스트랩이 감각적인 티파니 아스트 웨스트 미-는 37x22mm 크기로 4백80만 원대 모두 티파니, 옐로 골드 베젤 위 스크류 디테일이 돋보이는 산토스 드 가르띠에 라지는 39.8x47.5mm 크기로 1천2백만 원대, 패어 워치로 함께 제안하는, 유연한 링크 브레이슬릿이 아름다운 데다 착용감이 뛰어난 밴드 드 가르띠에 스틸은 22x30mm 크기로 9백20만 원대 모두 가르띠에, 다이아몬드 두 줄을 세팅한 지름 32mm의 케이스에 시름스러운 참으로 장중한 핑크 골드 참 워치 2천3백20만 원, 지름 38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와 알라게터 스트랩을 잇는 우아한 라그가 돋보이는 파페르 아펠 워치 1천7백30만 원 모두 반달리브 아펠.

패러 스타일링 아펠 이니셔티브 워치

Especially for Her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니크한 토노 형태의 케이스에 여러 줄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매력을 강조한 RM 07-01 가격 미정 라치트 밀,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 측면을 따라 우아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장식의 우아한 드 빌 트레저 7백만 원 오메가,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더한 화이트 세라믹 J12 워치, 케이스 지름은 38mm로 8백69만 원 샤넬, 정교한 기요세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6시 방향의 문패이즈 창이 조화를 이루는 핑크 골드 랑데부 문 미디엄 워치, 지름 34mm로 가격 미정 에거 르골트르.



Especially for Him

(왼쪽부터)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패이즈를 포함한 페퍼추업 캘린더 워치,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지름은 44.2mm로 5천1백60만 원 IWC,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와 유백색 기요세 다이얼의 6시 방향에 날짜 및 문패이즈 창을 더한 스타 레거시 문패이즈 5백28만 원 몽블랑, 화이트 에-렐 다이얼을 장식한 미-같은 블랙 에-렐 인티스가 감각적인 로즈 골드 슬림 데트메스 워치, 케이스 지름 39.5mm로 2천2백만 원대 에르메스, 지름 44mm의 브라스 스틸 케이스를 장식한 견고한 디자인의 루마노르 마리나 브레이슬릿 워치, 인하우스 매뉴팩처 칼리버 P.9010으로 구동하며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및 30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1천만 원대 파네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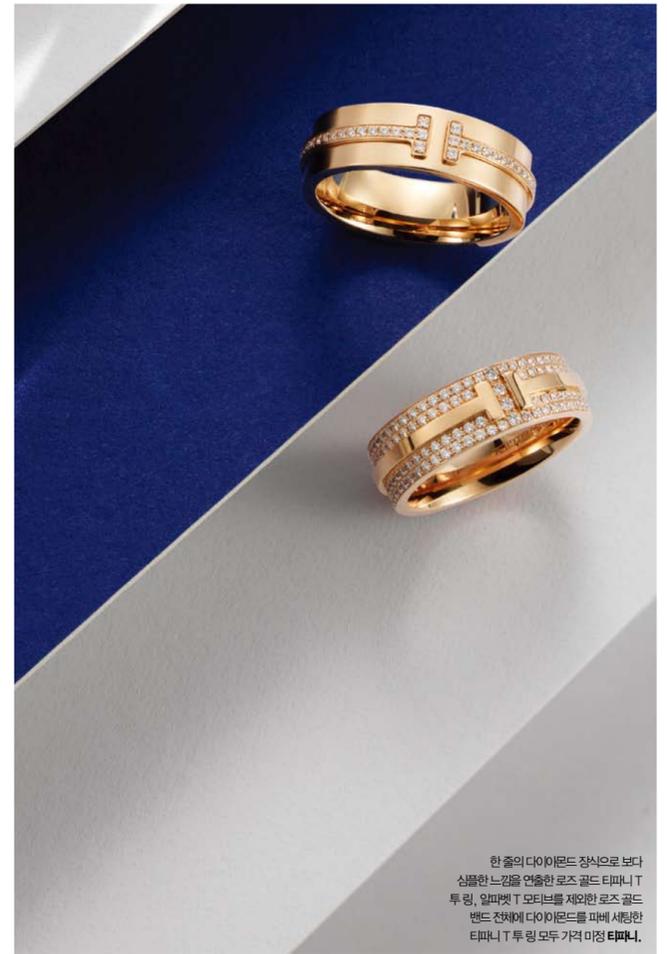


Wedding Band

(위부터) 프랑스어로 날개를 뜻하는 플럼(Plume) 컬렉션의 웨딩 밴드, 세의 날개가 맞닿아 있듯 서로 이어진 연인의 마음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핑크 골드 밴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모두 가격 미정 **쇼메**, 위치 컬렉션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타일리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웨딩 밴드, 단면에 인그레이빙 장식을 더한 화이트 골드 컨스텔레이션 링 1백95만원, 총 0.48캐럿에 달하는 5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컨스텔레이션 링 4백50만원 모두 **오메가**, 인체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눈길을 끄는 사무라 골드 소재 트라페지오 웨딩 밴드 모두 가격 미정 **타사키**, 그래픽적인 울트라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센터 스톤을 장식한 커플링, 각각 블랙과 화이트 세라미를 적용한 것으로 각 9백40만원 **사벨**.



고유의 모티브를 지닌 47개의 밴드를 결합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코트르 컬렉션, 옐로·화이트·핑크 골드와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화이트 에디션 스몰 링 4백만원대, 화이트 골드와 블랙 PVD 소재를 사용한 블랙 에디션 라지 링 7백만원대 모두 **부쉐론**.



한 줄의 다이아몬드 장식으로도 보다 심플한 느낌을 연출한 로즈 골드 티파니 T 투 링, 알파벳 T 모티브를 재킷한 로즈 골드 밴드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티파니 T 투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바디의 물결처럼 굽음이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인피니토 웨딩 밴드, 플라티넘 밴드에 0.2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3백54만원, 0.56캐럿 다이아몬드를 올 피베 세팅한 링 5백30만원 모두 **볼가리**.



중요의 링이 화전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 포제션 커플링 밴드, 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더한 포제션 링, 3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게 빛나는 포제션 링 모두 가격 미정 **피에레**.



슬리테어 링과 함께 연출하면 아름다운 트라티 루반 웨딩 밴드 8백50만원대, 3개의 고리가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얇은 신비로운 디자인의 트라티 루반 슬리테어 링, 플래티넘 보드에 1.62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가격 미정. 모두 **가르미에**.



플래티넘 밴드 측면까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어느 각도에서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베네치아 컬렉션 1503 링 가격 미정 **블가리**.



중앙의 4.02캐럿 하트 세이프 다이아몬드와 사이드 스톤을 나란히 세팅해 눈부시게 빛나는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두 줄로 나뉜 밴드를 따라 대체로운 컷과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조세핀 에글라 플로럴 링 가격 미정 **쇼메**.



원석이 더크고 영롱하게 보이도록 6개의 클로(claw)가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리고 있는 향토의 클래식한 화이트 골드 슬리테어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밴드 둘레를 장식한 정교한 플래티넘 비즈 디테일이 돋보이는 에스텔 슬리테어 링 7백50만원,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블리시테 웨딩 밴드 4백50만원 모두 **빈클리프 이젤**.



센터 스톤 주변을 3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둘러싸 광채를 극대화한 패션 인게이지먼트 링, 플래티넘 소재의 심플한 라일라이트 웨딩 밴드 모두 가격 미정 **파아제**.



부드러운 곡선형 사쿠라골드 밴드가 아름다운 라벤로 슬리테어 링, 골드 링으로 함께 제안하는 브릴리언트 트라프로 링 모두 가격 미정 **타사키**.



1캐럿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장식한 라브라이트 인게이지먼트 링 1천만원대 **프레이드**.



Bridal Jewelry
(왼쪽부터) 발하늘의 영롱한 빛에서 영감을 얻은 빅토리아 컬렉션 라인 브레이크릿, 플래티넘 보드에 마카조 킷,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타파니**, 총 6.3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에센셜 라인 브레이크릿 5천7백만원대 **가르미에**, 총 13.8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1천5백85개가 안도적인 광채를 발산하는 석세스 셀레브레이션 네크리스 1억3천5백만원대 **프레이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베들리 다이아몬드 이어링 1천5백만원대 **빈클리프 이젤**, 일드레인 세공으로 하프의 아름다운 음색을 형상화한 리트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루시예**, 에디터 **이혜미**

IWC 02-3440-5876 **그라프** 02-6905-3330 **카르미에** 1566-7277 **다이아니** 02-3279-9074 **리워드 밀** 02-512-1311 **루시예** 02-512-6732 **몽블랑** 1670-4810
빈클리프 이젤 00798-852-16123 **부세론** 02-6905-3322 **블가리** 02-2056-0172 **사넬** 080-200-2700 **쇼메** 02-3442-3159 **에르메스** 02-542-6622
에글라 02-6905-3398 **오메가** 02-511-5717 **타사키** 02-3461-5558 **타파니** 02-547-9488 **파넬라이** 02-2118-6256 **프레이드** 02-514-3721 **파아제** 02-778-2300

심플한 벨라인 튜브 톱 드레스는 **퀵 아이라 by 헤라티크 뉴욕**. 로즈 골드 컬러 메탈 브라스 톱 이어링 49만9천원, 화려한 골드 세드 크리스탈 네크리스 1백69만원 모두 **아틀리에 스위로브스키**. 태양 빛이 파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벨리루체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타원리츠 다이아몬드 밴드 2백70만원 모두 **골든듀**. 배젤을 수놓은 2백15개의 마이크로 파베 크리스탈이 화려한 크리스탈 로즈 워치 54만9천원, 진주와 크리스탈이 조화가 우아한 브레이슬릿 19만9천원 모두 **스위로브스키**. 한국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지름 25mm의 케이스가 아담한 로 로골 오트메틱 레이디 85만원,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름 45mm 케이스의 씨스타 1000 크로노그래프 65만원 모두 **타쏘**.

La Dolce Vita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가을 신부의 달콤한 준비 시간.
photographed by zoo yong gyun

실루엣이 몽상한 드레스 **이명순 웨딩**. 에.켈 스틸레토 힐 **스튜어트 와이즈먼**. 골드 컬러 메탈 브라스 톱 이어링 39만9천원 **아틀리에 스위로브스키**.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 가능한 랩 스타일 네크리스 27만9천원 **스위로브스키**. 앙증맞은 20.5X22mm의 작은 타원형 스틸 케이스와 5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배젤이 특징인 심포네트 컬렉션 워치 3백만원대 **몬진**.



레트로풍 버튼 장식의 돋보이는 드레스 **이본 리빈 by 헤리타르 뉴욕**, 깃털 모티브의 로돌 플러팅 스타드 이어링 12만9천원 **스외로브스키**, 로즈 골드 컬러 메탈 나크리스 79만원, 매우 패셔너블 크루즈와 칼라베라에 산해 탄생시킨 문선 컬렉션 방글 66만9천원 모두 **이본리에 스킨로브스키**,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배젤이 특징인 돌체 비타 컬렉션 워치 3만4천원 **문진**, 화이트 세라믹을 약 2만°C 기온에 넣어 마치 메탈처럼 은은한 빛을 띠도록 하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공법을 사용한 라이트 블루 컬러 다이아미터 문페이즈 워치 2만3천원 **리도**, 스틸 케이스 지름 42mm로 묵직한 느낌에 블루 스틸 핸즈를 매치한 마스터 컬렉션 남성 워치 4만6천원대 **문진**.



플러워 아플리케 드레스 **오스카 드 라 렌타 by 소우 브라이덜**, 골드 플러워 헤어밴드 **더 핀 라운지**, 깃털 모양의 블랙 피에 크리스탈로 장식한 상투리에 태슬 이어링 19만9천원, 그린 스톤과 크리스탈이 조화를 이루는 스파클링 단스 컬렉션 나크리스 17만9천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18K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임리스 링 2만7천원 **골든듀**, 화이트 자개 다이얼의 우아함에 11개 다이아몬드 인테스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6시 방향 문페이즈 워치 프라이머나 2만6천원대 **문진**.

레이스 소재의 감각적인 시스루 드레스
림 이트라 by 해리타크 뉴욕, 큐빅 에어밴드
더 핀 라운지, 자연스러운 웨이브 형태
 보드에 영감을 다이아몬드를 올린 루체라
 귀고리 1백72만원 **골든듀**, 감자에 낀 18K
 옐로 골드에 0.05캐럿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반지와 약자에 낀 두 줄 라인으로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워딩 밴드 모두 가격 미정
엠티루사, 20mm 정사각형 케이스의 미니
 레이디 워치로 주얼리를 착용한 듯 섬세한
 느낌을 주는 라플리 스퀘어 워치 45만원 **티쏘**.



고급스러운 진주 장식 드레스 **하프패니 by 소유 브라이어럴**, 18K 화이트 골드에 메인 다이아몬드를 감싼 두 겹의 펠레 장식이 볼륨감을 실려주는 스톤샌더 귀고리 7백76만3천원 **골든듀**, 지름 25mm 스틸 케이스에 로마숫자
 인덱스를 매치한 버룬첼리 II 레이디 트윈티 파이브 워치 99만원 **미도**, 감자에 낀 티앙라스 밴드 링 2백70만원, 약자에 낀 전통적인 세팅 방식의 벨라루체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모두 **골든듀**,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에 스테이세린 마감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12개의 다이아몬드로 인덱스를 표현한 버룬첼리 미드나잇 블루 1백34만원 **미도**,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송이자기족 스트랩을 매치한 슈랑 데 두벨 스텔라본 2백30만원 **티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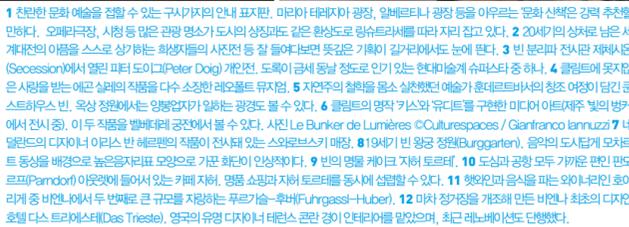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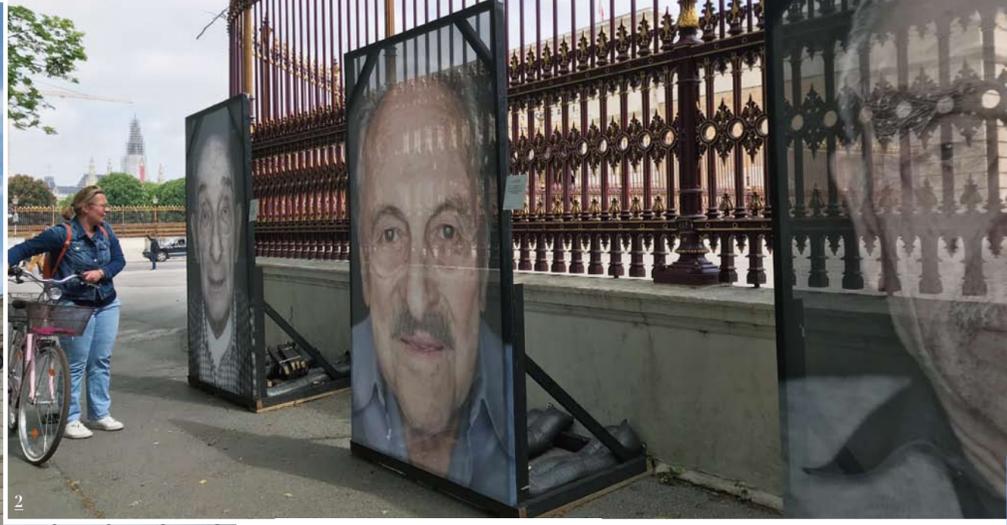
미니멀한 디자인의 백리스 드레스 **일렉산드라 그레코 by 소유 브라이덜**. 로즈 골드 컬러 플레이팅에 리운드 센터 피스와 파베 클리어 크리스털로 화려함을 더한 백금 19인칭원 **스외로브스키**. 약자에 긴 전통적인 세팅 방식의 벨리루체 솔리테어 링 가려 미장 **골든듀**.

유니크한 자수 장식의 홀터넥 드레스. 레아드란 리본 디테일의 시스루 롱 기어 미장 **이명순 웨딩**. 중간 길이의 베일 더 **퀸 라운지**. 스타드 이어링으로도 연출 가능한, 별을 형상화한 이어링 19인칭원 **스외로브스키**.

헤어 **오종오**
메이크업 **이숙경**
모델 **배구**
스타일리스트 **조사원**
에디터 **장하윤**



헤리티지 뉴욕 02-514-4010
아틀리에 **스외로브스키** 6330-9384
스외로브스키 02-1522-9065
티스 02-543-7685
골든듀 1588-6576
미도 02-3149-9599
이명순 웨딩 02-540-5551
스튜어트 와이즈먼 02-3449-5903
미도 02-3149-9599
클친 02-310-1597
리도 02-2143-1825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엘디루사 1888-5501
더 **퀸 라운지** 02-548-7218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탐방

uniquely Viennese

찬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펼쳐진 비엔나는 일단 '고전음악과 테러야 땀 수 없다. 그래서 클래식 애호가들은 베토벤과 슈베르트, 브람스의 묘, 모차르트 기념비 등이 있는 공원 같은 빈 중앙 묘지를 찾아 음악 성인들에게 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클림트의 잔재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엔나는 그저 고풍스러운 과거의 도시가 아니다. 현대까지 우아하게 이어진 카페 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댄스 문화, 한결 다채로워진 미식 풍경, 그리고 가장 '핫한' 현대미술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하루 숙박객 수가 1천6백5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꾸준히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오르내리는 데는 전통과 현대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문화 풍경이 버티고 있지 않을까.

비엔나의 문화 예술을 얘기할 때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 일례로 요한 슈트라우스(Johann Strauss) 1, 2세와 같은 거성들은 19세기 전반기와 중·후반기,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에곤 실레(Egon Schiele) 등 쟁쟁한 근대미술 거장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대중문화 콘텐츠로 눈을 돌려 비엔나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 (비포선라이즈)를 끄집어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지도 거의 25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말의 작품이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흔히 비엔나커피로 통하는 아인슈пан너(Einspanner)가 인기라지만, 사실 비엔나의 본모습을 잘 아는 이는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학생 신분이던 지난 세기 말 다뉴브강이 흐르는 이 작고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수도에서 겨울 내내 머무른 인연이 있다. 그에 앞서 배낭여행으로 들른 적은 있지만, 하나의 도시에서 한 계절을 온전히 겪는 느낌은 사뭇 다른 법. 이방인에게 유럽의 겨울은 춥고 쓸쓸하게 마련이고, 실제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래도 음악당이나 미술관 등에서 마주하는 비엔나의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나 근사한 카페에서 즐기는 매력적인 디저트는 꽤 순도 높은 위로의 자랑분이 됐던 것 같다. 자연주의 철학을 평생에 걸쳐 실천한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같은 비엔나 출신의 걸출한 파자 아티스트의 존재나 진한 초콜릿 스펀지케이크와 살구잼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자허 토르테(Sacher Torte)의 맛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시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비엔나에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무려 20년이 넘 만에 이 추억의 도시와 재회하게 됐다. 때마침 흥미 지수도 높아진 상황이라 더 반가웠다. 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수년 전 인터뷰를 했던 베네통 그룹의 창업자 루치아노 베네통. 그는 은퇴한 이래 국가별로 다수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우편엽서처럼 작은 사각 캔버스에 현대미술을 담은 '이마고 문디'라는 이색 컬렉션을 꾸리면서 순회 전시를 해왔는데, 그중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Vienna for Art's Sake'라는 '도시행이' 들어간 타이틀을 붙였다. 도록 자체도 표지 디자인의 현대적인 미학이 출중하게 돋보이는 터라 1백50개가 훌쩍 넘는 컬렉션 중 비엔나 도록을 택했다. 이를 계기로 클래식 음악이나 클림트가 아닌 동시대 문화의 현주소는 어떨지, 사람 사는 풍경은 어떨지, 궁금중이 솟아올랐다.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엔나, 오스트리아



변함없는 매력과 변화의 흔적, 도시 풍경을 조화롭게 능동다

사실 개인적으로 비엔나는 낭만적인 운치가 있지만 다소 보수성 짙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도록을 접하기 전까지는 '변화'라는 단어를 쉽게 연상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의 비엔나는 확실히 달랐다. 물론 국립 오페라극장이 창립 1백50주년을 맞이할 만큼 오페라나 발레, 클래식 음악, 박물관 등 전통적으로 강한 콘텐츠는 여전히 고야하게 잘 간수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를 받아들인 덕에 눈에 띄게 다채롭고 건강해진 식문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컨템퍼러리 아트와 음악, 일반 시민들이 푸르톱가든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고 양봉을 하는, 그래서 훨씬 더 푸르러진 도시 풍경, 유럽 허브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고 자부할 만큼 확대된 데다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교통 인프라 등이 긍정적인 변화로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 어린 시선 대신 '외부'보다 열린 시각과 태도가 옛보다는 사람들의 인상이 기본 좋게 다가왔다. 첫눈에는 여전히 고풍스러운 면모가 돋보이지만, 그 겹질을 벗겨내면 달라진 속이 드러난다. 변화의 간극을 가늠할 수 있는 재방문이든 첫 만남이든 비엔나는 걸어서 면면을 느끼기에 참 좋은 도시다. 비엔나의 도시권 면적은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인 415km²인데, 인구는 2백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비엔나의 절반이량이 정원, 공원, 숲, 그리고 농지로 이뤄져 있다.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지만, 느긋하게 거니는 '도시 산책'은 차별된 즐거움을 선사한다(특히 이방인에게). 녹음을 한껏 만끽하거나, 거리의 약사들이 연주하는 때로는 흥겹고 때로는 애수 띤 음악을 듣거나, 스트리트 아트나 설치 작품 등 공공장소 혹은 매장에서 마주치곤 하는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를테면 한때 유럽 최고의 왕조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화려한 위용이 느껴지는 호프부르크 왕궁과 마리아 테레시아 광장 등이 있는 구시가지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길거리 야외 사진전. 철제 담을 배경으로 세워놓은 커다란 사진 액자를 채우고 있는 얼굴들은 대부분 노인인데, 알고 보면 세계대전 희생자들이다. 오페라하우스 앞에 가면 1800년대 파리에서 초연된 발레 <해적(Le Corsaire)>을 야외에서 실황 중계로 볼 수 있다. 음악의 본고장답게 제즈 축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도 비엔나를 수놓는 감각적인 콘텐츠다. 또 1백만 명 넘는 인파가 모여드는 동성애 축제 유로프라이드(EuroPride)가 열리기도 한다.

고풍스러운올 세련된 동시대 감성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21세기의 비엔나

잘츠부르크와 함께 음악의 도시로 꼽히는 비엔나지만, 그렇지만 부르크에는 건축, 공예, 미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미술을 잘 몰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황금빛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도시 아니겠는가. 화려한 색



채와 섬세한 아르누보풍 작품으로 잘 알려진 클림트는 세기말의 혁신을 주도한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젊은 동료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미술가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당시 제도권의 틀에 박힌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추구한 '분리의 움직임'을 꾀한 것. 그래서 '빈 분리파'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전당이던 공간이 '분리파'라는 뜻을 지닌 제세시온(Secession)이다. 제세시온 운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분리파 회원이자 건축의 대가 오토 바그너의 제자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Joseph Maria Olbrich)가 설계했는데, 클림트의 프레스코 벽화 '베토벤 프리즈(Beethoven Frieze)'가 영구 전시돼 있다. 클림트 추종자라면 그 유명한 '키스'와 '유디트가 소장돼 있는 벨벳테레 궁전과 더불어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적인 외관 덕분에 '금색 양배추 머리'라는 별칭이 붙은 제세시온을 필수적으로 찾는다. 하지만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피터 도이그(Peter Doig) 같은 동시대 스타 작가들의 최신작도 만나볼 수 있는, 작지만 내실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클림트가 끄집어 아끼던 천재 에곤 실레(1890~1918)를 위시해 오스카어 코코슈카(Oskar Kokoschka) 같은 표현주의 화가를 만나려면 레오폴트 미술관을 빼놓을 수 없다. 1925년생인 미술품 수집가 루돌프 레오폴트(Rudolf Leopold)가 1950년대부터 실레의 작품을 열심히 모아둔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회암 파사드의 미술관 건물이 들어선 뮤지엄 콤파티어(MQ)라고 불리는 '아트 허브'로, 진화색빛 현대미술관 무모크(Mumok), 어린이 미술관 등 10개 전시장이 모여 있다.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도록 야외 광장을 지나다 보면 K-팝 걸 그룹의 대표 주자 트와이스의 노래에 맞춰 열심히 춤추는 10대를 비롯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또 마리아 테레시아 광장에 자리한 빈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은 그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미술의 보고다. 벨라스케스, 루벤스, 렘브란트, 티치아노 등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을 말해주는 듯한 눈부신 컬렉션을 자랑한다. 고풍스러운 내부와 마크 로스코의 초기작부터 대표적인 추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획전의 조화는 '발품을 가져가 팔 만한' 이이다. 뒤러의 '토끼(Der Hase)'로 유명한 알베르티나 미술관 역시 그토록 갔다가는 소장품보다 빼어나다는 평을 듣는 팝아트, 사진전 등 폭넓은 기획전으로 명성 높다. 주요 근현대 전시만 '설립'해도 3박 4일이 모자란 비엔나의 미술관 풍경이다.

달콤쌉사름한 디저트, 카페 문화의 매혹

앞서 언급한 빈 미술사 박물관의 또 다른 인기 콘텐츠는 다름 아닌 카페다. 높다란 천장과 격조 있는 샵들리에, 거구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즐기는 커피와 둘째가라면 서러운 디저트의 조합은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다. 웬만한 미술관을 비롯해 비엔나는 곳곳에서 멋진 카페를 발견할 수 있는 도시인데, 17세기 말에 처음 카페가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특유의 커피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됐을 정도다(2011년). 비교적 이른 아침부터 카페를 찾아 '식사'처럼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즐기고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는 비엔나 현지인들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웬만한 카페는 장사가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특히 역사 깊은 스타 카페들은 평일에도 1시간 동안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클림트 같은 화가를 비롯해 수많은 문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지식인을 단골로 뒀던 곳으로, 1876년 문을 연 카페 쉐트랄(Café Central), 역시 19세기에 등장해 비엔나의 명물 자허 토르테로 유명세를 누려온 호텔 자허의 카페와 데멜(Dehmel) 등이 대표적인 장소들. 비엔나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계적인 유통 기업인 맥아더글렌 그룹이 운영하는 판도르프 아웃렛이 있는데, 이곳에 카페 자허의 분점이 들어서 소풍도 하고 길게 줄 서지 않고도 자허 토르테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도 좋겠다. 다만 비엔나를 찾아 카페에 들른다면 아인슈판너는 한국에서 회자되듯이 '비엔나커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자. 미처를 끄는 마부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실제 마부들이 할고배를 쥔 채 손쉽게 피로 해소처치며 미시도록 고안된 터라 입구가 약간 길고 좁은 커피잔에 받침도 없다. 이 도시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엔나커피는 카푸치노와 비슷하게 우유 거품을 올린 부드러운 '멜랑주(Melange)'. 어쨌거나 둘 다 시도해보자. 단, 웬만하면 비엔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빼놓지 마시라. **글 고영진**



in harmony with Nature

샴페인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돔 페리뇽(Dom Pérignon)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성싶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다. 하지만 프레ستی티 빈티지 샴페인의 대명사인 돔 페리뇽이 자신의 화려한 브랜드 파워에 살짝 눌러 외려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멘소리를 하는 진성 팬들도 있다. 이 같은 열혈 팬은 물론이고 굳이 샴페인 애호가가가 아니라도 절로 사랑에 빠질 만한 미각의 향연이 지난 7월 초, 우리의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에서 펼쳐졌다. 미술랭 스타 셰프 임정식과 손잡고 진정한 '돔 페리뇽 빈티지 2002 - 플레니튜드 2' 행사 현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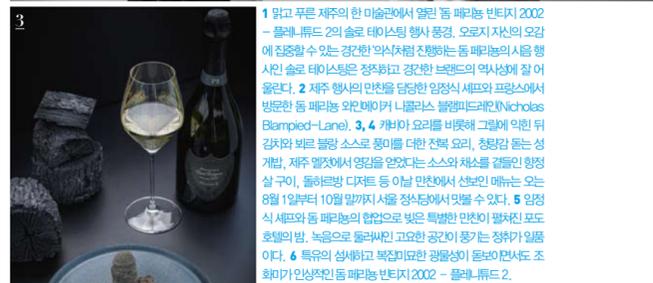
자연과 더불어는 디자인과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한 제주의 포도 호텔, 온통 녹음으로 뒤덮인 천혜의 자연이 병충차림 펼쳐진 이곳의 작은 뜰에 번성치 않은 무대가 마련되었다.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달린, 딱 유리한 하-만 올라볼 수 있는 원형 테이ب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독특한 풍경. 마침 바람이 자-간 무한 청산한 공기, 그리고 탁 트인 시야 덕분에, 삼시 이상 샴페인 잔처럼 투명하게 비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윽고 샴페인 '도르르' 유리잔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새하얀 거품이 몽글몽글 솟는다. 그 맑은 액체를 한 모금 들이켜는 순간을 감싸는 유난한 고요함은 허를 일깨우게 화강는 미묘한 맛의 미학에 오롯이 집중하게 도와준다. 이날 주인공의 전격 등장에 앞서 진행된 돔 페리뇽 빈티지 2008의 시음, 1차 술로 테이스팅은 이렇게 일종의 '의식'처럼 펼쳐진 은근히 강렬하게 매듭지어졌다.

녹음 속 선물 같은 '신의 물방울'

'의식'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돔 페리뇽의 시음은 늘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이들은 그저 눈부시게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브랜드의 유산지는 성실하고 솔직한 정신과 이어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돔 페리뇽은 지금으로부터 3백 년도 더 전에 한 수도원에서 창조된 비범한 탄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프랑스 상파뉴에 위치한 오빌레 수도원의 수도사자 재장 담당자 피에르 페리뇽(Pierre Pérignon, 1638~1715)이 우연히 2차 발효되면서 탄산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팽 터진 와인을 맛 본 것을 계로 탄생한 '유리잔의 소신'이 아니었나. 실험 정신 중년했던 피에르 페리뇽은 로마시대 이후로 쓸모를 잃은 코르크 마개를 활용해 와인의 숙성과 산도를 높였고, 포도알을 압착해 붉은 포도 품종에서 화이트 와인을 얻어내는 특별한 방식을 시도하는 등 꽤 혁신적으로 샴페인에 헌신했다. 하지만 오늘날 돔 페리뇽이 '샴페인의 왕'이니 '여왕'이니 하는 칭송을 자주 듣는 이유가 그게 다일 리 없다. 뼈 속 깊이 박힌 도전 정신의 고백을 늦추지 않고 여러모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 행의 백미인 돔 페리뇽 '플레니튜드 2' 시리즈다. 프랑스어로 '절정이라는 뜻의 '플레니튜드(plénitudes)', 풍부하고도 성세한 광을 형이 나는 돔 페리뇽 특유의 독창성이 1차, 2차 숙성기를 거치면서 절정에 가까운 경치를 드러냄을 의미하는 수식어다. 예컨대 돔 페리뇽 빈티지 2002 - 플레니튜드 2라 하면 2차 절정기를 맞이한 돔 페리뇽 빈티지 2002를 뜻한다. 바로 제주 행사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조화로운 에너지의 매혹, 그리고 제주의 영감 어린 미식

행의 꽃을 음미하기 위한 '보양식'은 더 특별했다. 우선 '돔 페리뇽 빈티지 2002 - 플레니튜드 2'를 위한 2차 술로 테이스팅이 열렸는데, 장소는 인근에 자리한 미술관. 비움의 미학이 물어-는 건축물의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위로는 하늘을 향해 뚫린 둥글고 커다란 창이 보이는 공간이다. 포도 호텔을 디자인한 한국계 일본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작품인데, 15년의 숙성을 거쳐 빛을 본 돔 페리뇽 빈티지 2002 - 플레니튜드 2를 만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진전한 물을 바라보면서 한 모금, 둥근 창 너머 보이는 푸른 하늘을 감상하면서 또 한 모금, 에너지의 향연이 최고조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이하는 느낌과 기쁨이 깊고 강렬하다. 그러면서 조화로운이 더해져 뭐랄까, 포용력도 느껴진다. 해가 지지 않는 빈티지라 불리는 2002년산의 활활까? 와인메이커 니콜라스 블랑피드레인(Nicholas Blangied-Lane)의 설명을 곁들이자면 이해의 완벽한 날씨 덕에 남다른 성숙도를 품게 됐고, 그것이 조화미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균형 잡힌 풍미를 더 북돋는 환상의 도우미는 더 이상 자연도, 건축도 아-졌다. 자리를 옮겨, 포도 호텔의 야외 공간에 차려진 영감 넘치는 만찬. 그것도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미술랭 스타 셰프 임정식의 손길로 다한 정찬이 어떤 공학의 완성도는 보장된 가나 다음없을 터, 샴페인의 영완한 단짝 커피야 요리를 시작으로 그릴에 익힌 뒤 감자와 비트 블랑 소스로 풍미를 더한 전복 요리, 청량감 돋는 상계말, 제주 열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소스와 채소를 곁들인 향정살 구이. 플레니튜드 2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메뉴는 오감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기본 좋은 포인감이 몸을 감싸면 다시 샴페인에 집중하게 되는 법. 특유의 고요한 정취 속에서 훌쩍따 보니 어느새 밤이 무르익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별이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운동주의 명시 '별 해는 밤이 떠오르는 제주의 밤'이다. 예더 고상연



1 맑고 푸른 제주의 한 미술관에서 열린 돔 페리뇽 빈티지 2002 - 플레니튜드 2의 술로 테이스팅 행사 풍경. 오로지 자신의 오감에 집중할 수 있는 경건한 '의식'처럼 진행되는 돔 페리뇽의 시음 행사인 술로 테이스팅은 정숙하고 강렬한 브랜드의 역사성에 잘 어울린다. 2 제주 행사의 민낯을 담당한 임정식 셰프와 프랑스에서 방문한 돔 페리뇽 와인메이커 니콜라스 블랑피드레인(Nicholas Blangied-Lane). 3, 4 커피야 요리를 비롯해 그릴에 익힌 뒤 감자와 비트 블랑 소스로 풍미를 더한 전복 요리, 청량감 돋는 상계말, 제주 열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소스와 채소를 곁들인 향정살 구이. 플레니튜드 2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메뉴는 오감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기본 좋은 포인감이 몸을 감싸면 다시 샴페인에 집중하게 되는 법. 특유의 고요한 정취 속에서 훌쩍따 보니 어느새 밤이 무르익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별이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운동주의 명시 '별 해는 밤이 떠오르는 제주의 밤'이다. 예더 고상연



the legend of Diamonds

전설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비전이 남다른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 링 디자인의 기원이 된 전설적인 티파니 세팅을 탄생시킨 이다. 1800년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최상급 보석을 수집하며 '다이아몬드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은 그는 주얼리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널리 알리며 세계적인 브랜드의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 특히 티파니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1877년 남아프리카의 킬비리 광산에서 발견한 2백87.42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를 매입한 일. 티파니의 수석 보석학자인 조지 프레데릭 쿤즈 박사는 원석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며 1백28.54캐럿의



1 티파니 세팅 링. 2 1백28.54캐럿의 쿤즈 브릴리언트 컷 옐로 다이아몬드가 압도적인 네크리스. 3 전통 자수를 갖춘 보석학자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4 티파니 투루 웨딩 링.

쿤즈 브릴리언트 컷 옐로 다이아몬드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옐로 다이아몬드로 기록된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티파니가 캐럿보다 광채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기준을 확립하게 된 계기이자,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로서 명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 다이아몬드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착용한 주얼리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석 세팅을 바꾸어 지난 2012년에는 브랜드 창

립 1백75주년을 기념하는 네크리스로 재탄생했다. 현재는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 영구 전시되어 있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착용하고 레드 카펫을 밟아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차별성 보석학적으로 감정을 거치는 제한된 수량의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오직 0.04%만이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 그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아몬드 평가 기준인 4C, 즉 투명도(Clarity), 중량(Carat), 컷(Cut), 색상(Color) 외에도 외관(Presence)이라는 추가적인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티파니만의 특별한 기준에 따른 컷의 정확성, 대칭, 폴리싱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어우러져 다이아몬드의 광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9001에서 인정받은 자체 감정소를 운영하는 티파니는 최첨단 시설과 전문 지식을 갖춘 보석학자의 손을 거쳐 정교한 세공을 진행한다. 아름다운 광채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우선하며, 오랜 시간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와 함께 고객에게 전해진다. 한편 티파니는 윤리적인 채굴에서 최고의 장인 정신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순간부터 고객의 손에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광산 및 산지를 통해서만 원석을 공급받는다. 에디터 이혜미



《티파니 다이아몬드 (The Diamonds of Tiffany)》展 개최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독보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최상의 장인 정신과 여정을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 《티파니 다이아몬드(The Diamonds of Tiffany)》: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희소성과 가려, 4C, 장인 정신, 그리고 모던 러브까지 총 4개의 장르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최상의 아름다움과 광채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키기 위한 티파니의 숭고한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휴관일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일정 2019년 8월 10일~8월 25일 (휴관일 없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관 2층
참여 WWW.THEDIAMONDSOFTIFFANYEVENT.KR을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무료입장)



*도슨트 투어 신청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주말 제외 1시간 1회 운영.

a miracle Diamond

최상의 원석, 최고의 감별 능력과 연마 기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지닌 기업만이 얻을 수 있는 자격, 사이트 홀더. 타사키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으로 최상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다루며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진주로 유명한 타사키의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몇 가지 이유를 만나보자.



1 사이트 홀더 자격을 갖추고 고유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보유한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 플래팅 버전. 2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은 사쿠라클라우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의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 3 행백한 손길을 상징하며 순결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반짝이는 아름다움까지 표현한 브릴리언트 트리프로 사쿠라클라우드 링. 4-7 숙련된 기술과 감성을 소유한 장인들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감별하고 연마해 영리한 빛을 내는 타사키의 특별한 다이아몬드를 생산한다.

사이트 홀더, 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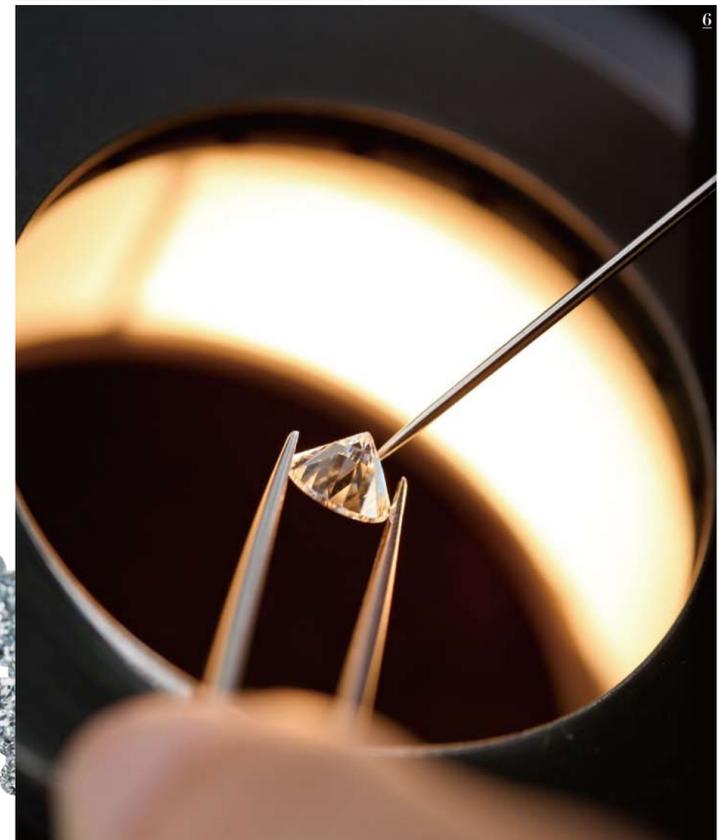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원석, 다이아몬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이자 무색투명한 빛을 내는 이 원석은 예로부터 승리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며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주얼리 메종들은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좀 더 특별한 세공법과 디자인을 가미해 가치를 드러내고 보존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기적의 빛을 재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이아몬드를 제공하는 타사키는 1994년 사이트 홀더 자격을 취득했다. 사이트 홀더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드비어스사 DTC(Diamond Trading Company)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뛰어난 원석 평가 노하우와 연마 기술을 갖춘 것은 물론 마케팅과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능력까지 고려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의 회사에만 이 자격이 부여됐는데,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사이트 홀더인 타사키는 고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매입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세계적인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타사키 다이아몬드의 특별함

타사키의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먼저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공정 거래한 다이아몬드 원석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매일 단계부터 원산지가 증명된 것만 구입하는데, 현재는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캐나다, 4개국의 원석만 사용한다. 게다가 채굴 후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한다거나, 연마 시 나오는 분진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며, 산출국의 고용 창출과 윤리적인 거래를 실천하며 사회 공헌의 길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체 감정과 연마를 고집한다는 것. 숙련된 기술을 갖춘 장인들이 정확하고 섬세한 커팅을 시행해 'very good' 단계를 넘어 'excellent'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견인하는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비스타니 마사노부'에 대한 스토리다. 예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취급해온 사람을 부르는 칭호인 다이만타르(diamantaire). 에비스타니 마사노부는 이 칭호를 얻은 얼마 안 되는 일본인 중 한 사람으로, 타사키에 입사한 뒤 이스라엘에서 경험을 쌓아 이 칭호를 취득했다. 다이만타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지식과 감식안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도 받는다. 실제로 그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부터 필적 감정과 심리학자 면담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에비스타니 마사노부는 '왼쪽 눈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오른쪽 눈으로는 상대를 보라는 가르침에 따라 지금까지 60만 개가 넘는 원석을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하며 다이만타르의 역량은 다이아몬드를 살펴보는 횟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8월 웨딩 시즌을 맞아 평생을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걸맞은 최상의 품질과 기적의 빛을 제공 하려는 타사키. 캘리터 좋고 믿을 만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면 망설임 필요가 없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장민우

● sponsored by TASAKI



(위부터 시계 방향) 에거 크롬브로 린드부 문 미디엄 문페이즈 기능을 갖춘 자사 칼리버 925A/1로 구동하는 시계. 총 2백 42개의 정교한 부품으로 구성된 무브먼트는 시간당 20,000회 회전하며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이클라우드 지를 34mm 핑크 골드 케이스의 6시 방향에 위치한 블루 래커 소재 문페이즈 창을 통해 볼 수 있다. 푸른 밤하늘의 상징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8 **블랑팡 우먼 오르 샌터 아워** 화이트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유선형 다이아몬드 줄기 문으로 12시 방향에는 시·분을 알리는 사브 다이얼이, 6시 방향에는 30초 레트로그라드 인디케이터가 자리한 독특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는 모델. 백 케이스를 통해 칼리버 2663SR의 정교한 움직임과 불꽃같은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2천 백만 원대. 문의 02-6905-3367 **몽블랑 보렐 데이 & 나잇** 간결한 화이트 다이얼이 앞면 배향된 낮과 밤 인디케이터를 통해 달이 교대로 얼굴을 내밀며 시간의 흐름을 알린다.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위치하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오트메틱 무브먼트 MB 24.10으로 구동한다. 9백 70만 원. 문의 1670-4810 **카르띠에 멘디 미스타리 아워 9981 MC 칼리버**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윤곽을 장식한 채 다이얼을 감싸고 있는 멘디의 모습이 압권인 모델. 매종의 워터레지스트 기능을 상징하는 미스타리 칼리버(15)를 적용해 시와 분을 가리키는 핸즈가 별도의 연결 부분 없이 공중에서 작동하는 듯 보인다. 48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블리 루세이 문 페이즈** 달의 주기를 오차 없이 계산한 기술적 정확성, 이를 아름답게 구현한 미학적 우수성을 두루 누릴 수 있는 시계. 12시 방향에 위치한 넓은 호 모양 문페이즈 창은 푸른빛이 도는 아벤투린 글라스 소재로 화이트 마더오브밀 다이얼,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아우라져 스톤을 볼 수 있다. 자사 칼리버 BVL 210을 탑재하고,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3천 7백 원대.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이혜미**

dedicated to Women

우아한 아름다움에 혁신적 기술력까지 겸비했다. 오직 여성을 위해 탄생한 컴플리케이션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precious Time

착용할 때마다 소중한 순간을 추억하게 하는 마법 같은 예물, 시계. 가장 행복한 시기에 젊은 감성으로 선택하는 아이템인 만큼 오래 착용해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을 권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De Ville Trésor collection

케이스 측면을 따라 곡선을 그려며 이어지는 다이아몬드와 슬림한 핸즈, 그리고 원을 따라 큼직하게 새긴 로마숫자 인덱스가 우아하다. 모든 시계는 '그녀의 시간(Her Time)' 디자인의 미려 케이스 백을 장착해 그 자체로 유용한 액세서리가 되어준다. 케이스는 스틸, 18K 세드나 골드, 18K 문사인 골드, 그리고 18K 카노푸스 골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레드 가닛, 자개, 블루 어벤추린, 라커 블랙,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의 다이얼을 매칭할 수 있다.

(위부터) 지름 36mm 18K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래커 처리한 그레이선 레드 가닛 다이얼을 매칭한 버전 1천원대, 진사 처리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핸즈를 우아한 블루 컬러로 통일하고 화이트 다이얼, 지름 36mm 스틸 케이스와 매칭한 버전 5백만원대, 지름 33mm 스틸 케이스에 래커 처리한 화이트 자개 다이얼과 로듐 도금 핸즈를 매칭한 버전 7백만원대 모두 드 빌 트레저 컬렉션 워치. 레이디메틱 시계 케이스를 재해석한 매혹적인 웨이브 패턴의 레이디메틱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9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 sponsored by OMEGA



Constellation Manhattan Collection

베젤 아래위로 눈길을 사로잡는 반달 모티프와 케이스에 장착한 클러, 모노 랭 브레이슬릿은 이 컬렉션의 핵심 디테일이다. 타임피스와 심장부에는 오메가 칼리버 4061을 장착했고, 케이스 백에는 컨스텔레이션 천문대 메달리언이 스탬핑되어 있다.

(위부터) 로마숫자를 새긴 베젤과 선 브러시드 패턴의 삼페인 다이얼, 다이아몬드 인덱스 등 18K 옐로 골드와 스틸을 매칭한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워치 5백만원대, 화이트 실버 다이얼을 다한 18K 옐로 골드 및 스틸 버전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워치 5백만원대, 간결함과 아이코닉 디자인을 결합하고 18K 레드 골드 및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컨스텔레이션 링 3백만원대, 지름 25mm의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화이트 실버 다이얼을 매칭한 컨스텔레이션 워치 7백만원대, 디자인의 영감이 되어준 활짝 핀 꽃봉오리를 모티브로 하고 18K 레드 골드에 자개 카보숑 2개를 세팅한 오메가 플라워 링 1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에디터 정하윤



optimist Rhythm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의 한 부둣가에 거대한 빛의 공간이 열렸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블랙홀. 그 속에서 프라다의 2020 S/S 남성복 패션쇼가 시작됐다. 모든 공간을 지배한 빛의 플레이는 환상적이었고, 그 빛을 관통하는 프라다의 런웨이는 더없이 강렬했다.

에너지, 도발, 그리고 자유의 힘

시즌마다 늘 많은 패션 피플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프라다의 2020 S/S 남성복 컬렉션, 낙관적인 밝은 컬러와 신선한 패셔너리로 가득했던 이번 쇼는 프라다의 남성복이 내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선언한 컬렉션이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퓨처리즘이 돋보였지만, 클래식한 연상시키는 모티프를 곳곳에 사용해 모호하게 경쾌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의도된 이중성은 보

수적인 세대에게는 파격과 혁신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디테일을 제시하는 신선함을 아낌없는 장치, 룩에서 가장 먼저 돋보인 건 다양한 길이를 활용한 레이어드링과 사랑스러운 느낌의 파스텔컬러였다. 폴로 셔츠나 오픈 셔츠 같은 단정한 이미지의 아이템들은 허벅지 중간까지 길이가 내려왔으며, 여기에 무릎 위로 훌쩍 올라간 쇼트 팬츠를 매치했다. 한걸 더 나아진 테일러드 재킷과 발목 위로 올라간 8부 팬츠의 매치는 전통하면서도 경쾌했다. 마치 옷으로 즐기는 놀이를 하는 듯 리드미컬한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레이어드한 하나의 룩에서 각각의 아이템은 존재감을 더욱더 발휘하는 느낌. 컬러 플레이 역시 인상적이었는데, 종종 소녀를 연상시키는 핑크, 옐로, 민트 그린 등 파스텔컬러가 등장해 건강한 남성 모델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키와 볼레를 기본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대체롭게 사용했는데, 때로는 스털과 양말, 가방 등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니의 룩 안에 세너 개 이상의 파스텔컬러가 어우러져 스포티한 무드와 힐한 느낌을 강조하기도 했다. 눈에 띄게 커진 로고 플레이, 배지와 패치를 나열한 상의, 마치 손으로 다룰 거릴게 엮은 듯한 액세서리, 양말과 샌들의 매치 등 프라다의 컬렉션에서는 거의 매년 만날 수 있는 요소는 이번 시즌의 톱픽 투는 위티(witty)한 포인트이기도 했다. 결코 프라다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컬렉션. 과거와 미래가 만나 새로운 혁신으로 표현된 이번 컬렉션은 프라다의 상상력에 감탄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다. 언제나 꿈꾸는 즐거운 일탈. 내년 S/S 프라다의 남성복 컬렉션은 기대감을 품기에 충분하다.

시간이 멈춘 듯 거대한 내온 빛의 공간

컬렉션 못지않게 프라다의 미래 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던 건 쇼가 열린 공간이다. 프라다는 이번 2020 S/S 남성복 쇼를 위해 상하이 민셩 부두(Minsheng Wharf) 자정고의 기공되지 않은 모습과 산업적인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첨단 조명을 설치, 탄성을 지어낼 정도로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거대한 빛의 기둥이 길게 배치된 방을 가로지르는 직선 런웨이를 통해 또 다른 빛의 구조 속으로 사라진 캐뉼크는 끝이 보이지 않아 더욱 공상적으로 느껴졌다. 아사아에서 가장 큰 자정고 중 하나라는 민셩 부두의 창고로 빛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초월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멋진 쇼가 끝난 후 이 거대한 공간은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파티장과 클럽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참석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1 거대한 빛의 기둥 사이를 자르는 2020 S/S 프라다 남성복 쇼의 파빌리온. 2 중국 상하이인 민셩 부두에 있는 자정고의 대관실. 환상적인 색채의 내온 빛이 잠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까지 들게 만들었다. 3 여전히 무아한 마추자 프라다 여사와 미국의 상아송라이터 프랭크 오션(Frank Ocean)이 쇼가 끝난 후 담소를 나누는 모습. 4 더욱 역동적으로 변신한 프라다 로고 비문사인. 5, 6 서초는 길게, 팬츠는 짧게, 다양한 길이를 매치해 반전 스타일링을 보여주었다. 7, 8 사랑스러운 파스텔컬러와 환상의 패치. 밝은 컬러 자체가 2020 남성복의 메인 트랜드로 떠올랐다.



for my Dearest

다양한 취향을 지닌 예비부부, 커플에게 제안하는 론진의 베스트 페어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특별한 기능과 우아한 디자인 모두를 갖춰다

론진 프라미루나 문페이스 워치 &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스 워치

현대인의 다채로운 생활양식과 필요에 맞춰 여러 기능을 갖춘 론진 마스터 컬렉션.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존, 파워 리저브와 레트로그레이드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차별화한 라인업 덕분에 비즈니스맨부터 스포츠맨, 잿세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성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문페이스, 크로노그래프, 24시간 인디케이터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모델에 담아 합리적인 가격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한 론진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스 워치는 인기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 정교하게 작동하는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L687을 장착해 시간당 2인8천8백 회 진동하고, 54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페어 워치로 여성 컬렉션을 대표하는 론진 프라미루나 문페이스 워치를 추천한다. 달의 동그란 형상을 상징하는 입체적인 원형 다이얼의 6시 방향엔 서정적인 문페이스 창을 더했다. 클래식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블루 스틸 핸즈가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고 우아한 디자인, 손목에 착감가는 인체 공학적 설계의 링크 브레이슬릿까지 빠짐없이 만족스럽다.



모던한 멋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커플을 위한 론진 돌체비타 스틸 & 돌체비타 블랙

'인생은 아름다워(Dolce Vita)'라는 의미를 담은 달콤한 삶에 대한 찬사를 담은 돌체비타 컬렉션. 간결한 직사각형 케이스가 멋스러운 시계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기존 모델보다 더욱 커진 지름 27X43.8mm의 스틸 케이스를 장착한 돌체비타 블랙은 큰 시계를 선호하는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한 시계로 적당하다. 25X32mm 크기의 론진 돌체비타 스틸과 함께 남녀 커플 워치로 연출하면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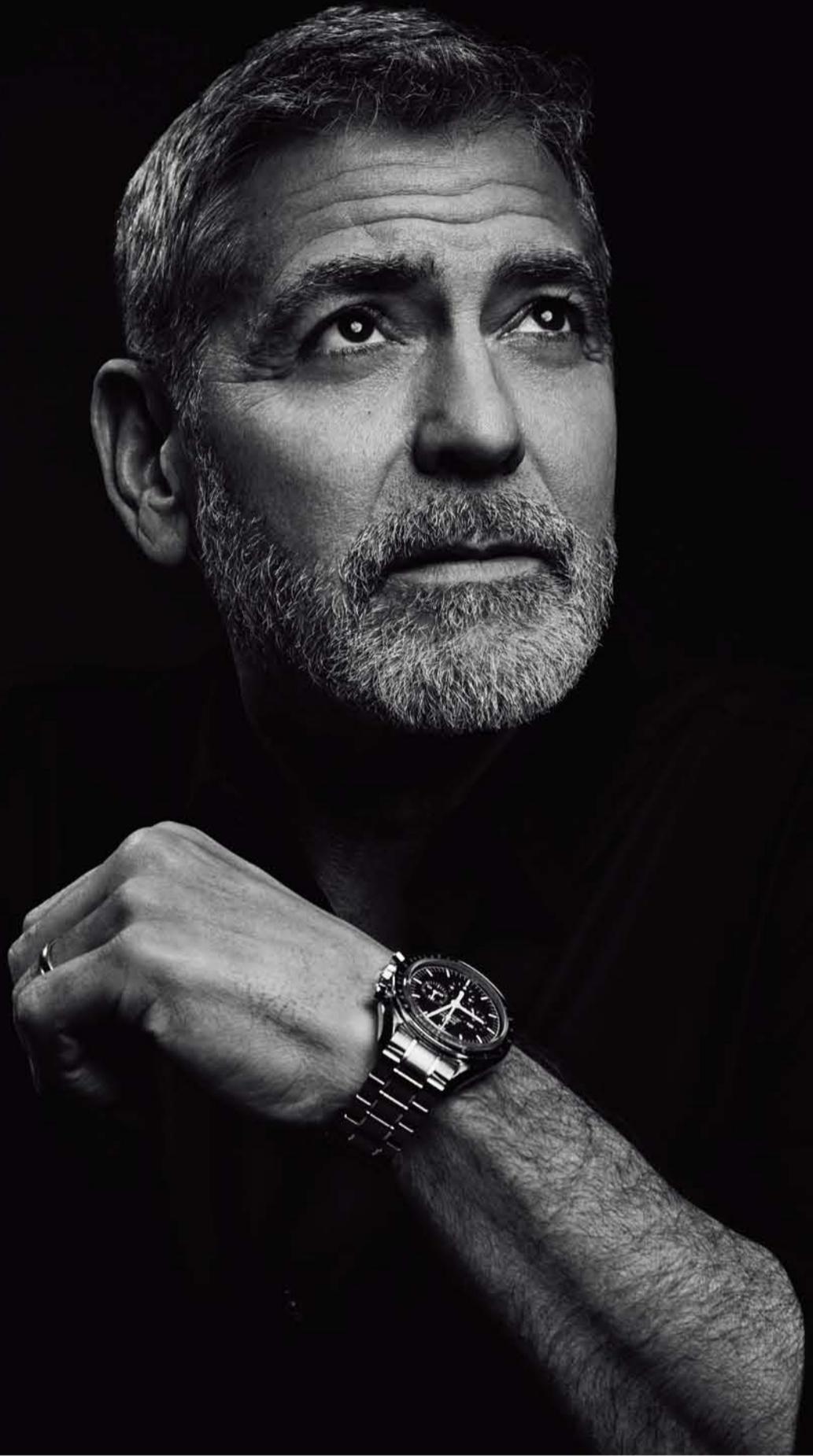
극도로 정교하고

정확한 타임피스 본연의 기능, 론진 레코드 컬렉션

론진은 정확도가 높고 수명이 긴 시계를 만들고자 가려운 동시에 부식에 강하며 온도 변화, 자기장, 대기압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무브먼트를 고안했다.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에서 정확성을 인증 받은 두 종류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Cal.888.4, Cal.592.4를 탑재한 론진 레코드 컬렉션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모델이다. 디자인적으로도 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 장점. 남성과 여성 고객 모두를 위한 총 네 가지 사이즈(26·30·38.5·40mm)로 출시하며, 스틸 & 로즈 골드 케이스, 또는 로즈 골드 케이스를 비롯해 일부 모델은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더한 버전으로도 선보인다. 스트랩은 링크 브레이슬릿부터 블랙, 브라운, 블루 컬러의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까지 매치할 수 있어 한층 다재다능하다. 문의 02-310-1597 **에디터 이혜미**



지름 30.5mm의 스틸 케이스를 장착한 론진 프라미루나 문페이스 워치 1백60만원대, 다크 브라운 엘라게이터 스트랩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한 지름 42mm의 론진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스 워치 4백만원대 모두 론진.



#MOONWATCH

THE FIRST WATCH WORN ON THE MOON

올해 오메가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역사 50주년을 기념하며 영광의 순간을 되돌아 봅니다.
달 착륙 순간, 우주비행사들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착용했으며
오메가의 오랜 앰버서더인 조지 클루니는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간 영웅들에게
오메가와 함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Ω
OMEGA